

# 국제석유산업의 장래

이 자료는 日本의 月刊「石油」誌에 게재된 석유 전문가이언 스킵트씨의 논문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 머리말

90년대의 석유산업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油價의 관리와 공급의 안전등 두가지가 중요 포인트가 된다. 油價 관리에 있어서는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관련되고, 공급의 안전성을 논하려면 中東의 정치정세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데 이는 향후 1년간 석유산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엔 석유산업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 투자에 대해 전망해 보고 또한 산유국이 하류부문의 통합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는 것과 금후 통합화된 사업 전개가 가능한가 그리고 지역블록 구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 石油의 가격관리

역사적으로 보면, 가격의 매니저라는 존재는 여론으로부터도 전혀 인기가 없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나 텍사스 철도위원회이고 戰後엔 「세븐 시스템즈」와 OPEC가 등장하게 된다.

이들 조직은 한때 가격관리를 시도해서 비판을 받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기가 없었는데 그 최대의 이유는 생산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지나치게 향

수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국이 이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되는 것은 고액의 石油諸稅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것은 산유국의 이익에 상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산유국이 OPEC를 결성했을 때는 석유를 방패 삼아 세계를 인질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석유의 가격관리는 언제나 인기가 매우 나빴던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OPEC라 하더라도 가격관리를 효율적으로 성공시켰다고는 볼 수 없다. 그들은 가격결정 프로세스의 등장인물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격관리를 성공시켰던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이 해온 일은 정책을 세워 환경을 조성해서 가격결정을 한다는 방법인데 이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한계적인 수준에서 생산하는 능력이었던 것이다.

과거 20-30년에 걸쳐 OPEC가 이룩해온 시스템은 단순히 카르텔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생산할당을 정해, 공급시스템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효율적은 아니었고 별로 성공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다.

石油은 몇년동안 안정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73년과 '79년-'80년에는 관리자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수준까지 상승하거나 반대로 '83년과 '85-'86년에는 폭락하는 등 심한 등락을 보였다.

지난해 걸프사태에 의해서도 유가는 상승했으나, 단기간에 위기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으므로, 과거 약 2년간의 가격안정은 두드러진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가격관리는 보통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 또는 몇몇 국가나 회사에 의해 관리되지만, 특정 케이스에 있어서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기업의 활동으로 붕괴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70년대의 리비아 또는 ENI가 그랬고 또한 '73년의 영국은, OPEC가 가격유지를 위해 카르텔화를 도모했을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국가였다. 나이지리아에 있어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발휘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OPEC의 장래

이러한 상황속에서 OPEC의 가격관리가 금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선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OPEC은 이제 '70년대나 '80년대의 상황과 판이해졌다는 사실이다.

OPEC의 '70년대는 「가격을 컨트롤한다」고 일컬어지는 시대로 어느 의미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이어서 '80년대는 가격컨트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대해 필사적인 노력을 계속했으나 실패한 시대였다. 그 실패는 카르텔의 실패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견해도 카르텔 실패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소비국 석유산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카르텔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공급을 컨트롤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컨대 사우디 아라비아가 공급조절자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사우디가 이를 포기하자 가격이 붕괴되어버린 경우는 이를 목격해 온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격의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계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절대 필요하며 그 밖에도 정치

력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위력이 없으면 타국가들은 자국주장에 추종시킬 수 없으므로 정치적인 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한계생산능력만으로는 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사우디는 이러한 정치적 위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으나, 사우디의 관리자로서의 위치는, 미국이 배경에 있음으로써 유지될 것이다. 현재 유가는 이들의 손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것이 장기화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마 장기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사우디 및 이란, 이라크와 쿠웨이트, UAE의 순서가 되겠지만 우선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에 주목하고 싶다.

한편 美國이 가격관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86년의 유가대폭락시 당시 부시 부통령이 리야드를 방문, 사우디에 대해 유가가 더 이상 하락하는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가가 그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으며 사우디와 미국이 동일한 인식을 갖고 적절한 가격수준에 대해 상호 양해했던 것이다.

그 가격수준은 20\$/B이었으며 그것은 여타국가들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인식이었다.

우리들은 현재 OPEC라는 조직은 빈사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OPEC는 조직으로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회원국, 특히 지도적인 제국중 사우디에 있어서는 매우 편리해 자기들에게 유익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사우디에게는 사우디가 주도해서 유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 있다. OPEC에 있어서의 공동의 의지결정이라는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에게 있어서나 여타 회원국에 있어서나 OPEC는 정치적인 우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카르텔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주도권이 수개국으로 분산되는 형식은 중요하다.

두번째 OPEC의 효용은 각국이 상호 의향을 탐색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판별하는 역할이다. 무엇이 온당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할 수 없었던 것이 걸프전쟁을 야기시켰다는 견해도 있으나 OPEC의 솜슴은 타국의의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매우 유익했을 것이

다. 어떤 행동을 취하면 어떤 반응이 되돌아 올 것인가를 판단하는데도 매우 좋은 무대였다는 것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다.

상이한 상황하에서는 IEA(국제에너지기구)가 동일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회원국이 빈번히 얼굴을 맞대고 의논하여 타국의 반응을 탐색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IEA도 OPEC도 효험이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대화는 매우 흥미있는 정보교환의 장으로서도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유가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산유국과 소비국 기업이 참가해서 설치하는 것과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될 것이다. 석유가격의 관리는 강한 정치적인 힘이 없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석유공급의 안전보장

석유공급의 안전은 세계정세 또는 정치적인 안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1973년 및 '79-'80년에 油價가 폭등해서 공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적이 있었다. 실제로는 정치적인 의미에서도 그러한 상황에는 있지 않았으나 리스크가 높은 것처럼 보였다.

정치적인 위기가 바로 석유 공급과 가격 불안정의 근원이 되는 셈이며 과거에도 그랬고 금후에도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면 불안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석유의 공급은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안전이 보장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1973년이나 '79년 또는 '90년과 같은 정치적 위기가 발생하면 계약은 전혀 의미가 없는 한장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비축에 의해 공급의 안전보장을 확보한다는 대응은 美國에 배운 전략이지만 비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개선을 꾀할 수는 있어도 해결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안전보장은 정치적인 안정을 꾀함으로써만 달성된다고 할 수 있으나, 中東의 상황을 보면 그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문제는 요르단에 多數의 팔레스타인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의 영향이다. 쿠웨이트로부터 추방된 팔레스타인인도 흘러들어와, 이제 요르단 人口의

절반, 또는 3분의 2가 팔레스타인인이라고 일컬어져, 팔레스타인 영토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둘째는 시리아는 골란고원에 대해서만 협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원문제와 관련해서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태도이다. 현재 정세로 판단하건대 이스라엘은 평화적으로 영토를 포기할 의향은 없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대다수 국민들도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금후 11월에 실시되는 총선거 결과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국민의 진의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네째로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랍내 해결」이라는 문제인데, 이집트가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아랍내 해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은 걸프만 지역의 美國 의존 문제이다. 걸프灣 지역 및 GCC는 사우디아에 의존도가 매우 높고 사우디는 美國에 의존을 계속한다는 구도를 염두에 두는 일이 중요하다.

이상, 석유공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5개 과제를 거론했는데 이들 요소는 향후 1-2년이 특히 중요하므로 이러한 환경속에서 금후의 석유산업을 전망해야 할 것이다.

## 상류 및 하류부문의 투자

석유산업이 상류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투자기회가 있고 투자여건이 갖춰지면 몇 100억달러라도 투자규모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석유회사가 회귀하고 있는 것은 투자기회이다. 걸프灣 산유국들은 개발을 위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유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장래를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이라크의 태도는 조만간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투자기회는 舊소련에 관해서이다. 종전에 소련이라고 일컬어졌던 당시부터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았으나 투자가 가능한지 석유생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다. 현재 법률적으로도 제도가 확고하지 않아 투자를 결의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드물다. 계약은 쌍방이 만족

할 만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며 한쪽에만 유리한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舊소련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이익이 보장되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석유에는 위험부담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그 용의는 있으며 자금도 준비될 것이고 적절한 투자기회는 조만간 오겠지만 현단계에서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상류부문에의 투자는 유가 동향에 좌우되기 쉽지만 새로운 투자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활황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기회는 쌍방에게 공정해서 석유회사들이 기꺼이 투자하도록 하는 유인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하류부문에의 투자에 있어서는 현재 환경대책에 많은 투자가 실시되고 있다.

환경규제가 강화된 오늘날 美國에서는 有鉛 휘발유를 구입하기 어렵게 되었다. 日本도 마찬가지로 유럽도 無鉛化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美國은 1990년에 「대기정화법」을 개정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를 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 석유산업은 휘발유의 방향족 유분의 경감, 경유의 탈황등의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기 위해서는 향후 약10년 동안 300-400億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들 코스트는 최종적으로는 제품에 전가하지 않

으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투자에서 이익을 올릴 여유가 없으면 석유산업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들 투자규모는 해마다 커져서 그 코스트를 회수하기 위해 석유산업은 소비자에 대한 설득과 계몽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설득은 잘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홍보전략이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일로 석유산업의 장래를 좌우할 문제이다.

그리고 또하나 하류부문에 대해 부언하고 싶은 것은 석유회사의 통합화는 한계적으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견 통합화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로는 투자의 프로세스의 통합화, 다각화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 맺는말

'90년대의 석유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는 유가동향과 공급의 안전보장이지만 동시에 석유산업은 상·하류 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향후 10년간의 석유산업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향후 10년간은 결코 안정된 시대가 지속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는 다소 안정된 상태에 있으나 금후 어떤 요인이 석유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금후의 10년은 과거와는 다른 10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도서안내 □

석유협회 창립10주년 기념

# 석유산업의 발전사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엮음 -